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7. 30. (수)

호남권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170.7㎿ 배분 완료

- 8월 중, 잔여물량 250.3㎿에 대해서도 후속 배분 예정
- 9월 초까지 호남 지역 421㎿ 허수사업자 물량에 대한 배분 완료 추진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물량(421㎿)을 현재까지 호남지역에서 배분한 결과, 총 170.7㎿ 규모의 74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계통 접속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15일(화)부터 전력당국이 호남권 재생에너지 접속재개 방안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 중인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배분의 중간결과로서, 제한된 전력망 여건에서도 실수요자가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잔여용량(250.3㎿)도 8월 중으로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된다.

먼저, 망 이용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현재 한전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잔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통정보(연계점, 전압 등)를 참고하여 8.4일(월)부터 8.14일(목)까지 한전 지역본부로 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배분은 신청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https://online.kepco.co.kr (한전ON > 전력계통 통합정보 > 재분배·유연접속 정보)

이후,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8.18일(월)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는 잔여물량에 대해 8.20일(수)부터 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식은 위와 동일하다.

한편, 전력당국은 위와 같은 배분에도 불구하고, 잔여용량이 발생하는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배전계통에 접속 대기 중인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도 배분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이 경우 변전소 내 개별 변압기 상황에 따라 배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배분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9월까지 호남 지역 421㎿ 물량에 대한 계통 접속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배분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044-203-3930)
		담당자	주무관 김훈경(044-203-39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